

부산일보

4

2009년 2월18일 수요일 제 20006 호

종합

“한 뿌리 맞나?” 사안별 큰 시각차

부산시-한나라 올 첫 당정협의

17일 열린 부산시와 한나라당의 2009년 첫 당정협의회는 부산현안에 대한 지역정치권과 지방정부의 현격한 시각차가 여과없이 드러난 자리였다. 정치권과 시 당국은 △광역상수도 △재개발·재건축 △동서지역 격차 △한일 해저터널 등의 문제에서 여러차례 상충된 입장을 보였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한나라당 김정훈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백성턴호텔에서 부산경제 살리기를 내용으로 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2020 하계올림픽 유치는 논의조차 못해 한일터널·재개발 문제도 뚜렷한 이견

특히 회의 끝무렵 허남식 시장이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구했으나 김정훈 부산시당 위원장은 “아직 의원들 사이에 입장정리가 안됐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유기준(서구) 의원은 “부산시의 의욕적인 사업들은 대부분 경남·울산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며 “광역상수도 사업이나 동남권 허브공항 건설 등은 나중에 지자체간의 극렬한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하고 면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병수(해운대·기장갑)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을 반드시 해야할 지역에는 주차장·공공시설 등 공공용지를 차근차근 확보해놓으면 나중에 사업이 훨씬 수월하다”며 “그동안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식(북·강서갑) 의원은 “서부산권 학생들의 학력이 해운대구 등에 비해 월등히 모자란다”며 “결국 아이들의 미래가 성장동력인 만큼 교육청이 할 일이라고 수수방관하지 말고 시에서 챙겨달라”고 주장했다.

이진복(동래) 의원은 “부산과 일본 사이에 해저터널 뚫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부산이 가진 항만의 특수성이 사라진다”며 부산시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대해 허 시장은 “부산으로서는 한일해저터널이 일본과의 교류협력에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만 정서적 문제나 건설방식에 있어서 초기적인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재개발·재건축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제기는 가장 심각했다.

허 시장은 “대상지역이 가장 많은 도시가 부산이고 그만큼 어려움도 많다”며 “결국 사업성 때문에 추진이 안되는 곳이 많은데 국비 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김무성(남구을) 의원은 “부산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되기 힘들다”며 “자신이 살던 곳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도 돈이 없어 들어갈수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허원제(부산진갑) 의원도 “부산의 재개발·재건축 대상면적은 여의도의 10배에 이르고 세대수로는 38만 가구”라며 “이렇게 많은 지역을 동시에 재개발하는 것이 옳은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시장은 “수요문제도 있지만 현재 열악한 주택을 그대로 둘 것이냐는 고민도 있다”며 “도저히 어려운 곳은 시기를 늦추는 등 부산 전역의 재정비 계획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박석호·전창훈기자 psh21@busan.com

釜山日報

2009年2月18日

「本当に同じ‘根’か？」懸案により大きな見解の差

釜山市—ハンナラ党
今年最初の政党協議

17日に開かれた釜山市とハンナラ党の2009年最初の政党協議会は、釜山の懸案に対する地域政界と地方政府の顕著な見解の差が表れた場であった。政界と市当局は、△広域上水道△再開発・再建築△東西地域の格差△日韓海底トンネル、等の問題で何度も立場の食い違いがみられた。

2020年夏季オリンピックの誘致は議論でさえできず
日韓トンネル・再開発問題も明らかな異見

特に会議の終盤、ホ・ナムシク（許南植）市長が「2020年夏季オリンピック誘致」と関連し、地域政界の協力を求めたが、キム・ジョンフン釜山市党委員長は、「まだ委員の間で意見の調整ができていない」と議論自体を拒否する場面もあった。

ユ・ギジュン西区議員は、「釜山市の意欲的な事業は大部分が慶尚南道・ウルサンとの協力を必要としている」とし「広域上水道事業や東南圏ハブ空港建設等は、あとで自治体間の猛烈的な対立を招く可能性がある」として、慎重かつ綿密な対策準備を促した。

ソ・ビョンス（海雲台・機長甲）議員は、「再開発・再建築を必ずしなければならない地域には、駐車場・公共施設等の公共用地をきちんと確保しておけば、後に事業が遥かにやり易い」とし「これまで何度もお話したが、ちゃんと推進されていない」と指摘した。

パク・ミンシク（北・江西甲）議員は、「西釜山圏の学生の学力が海雲台等に比べずば抜けて低い」とし「結局は子供たちの未来が成長の動力源であるだけに教育庁が行うことだと傍観するのではなく、市で動いてほしい」と主張した。

イ・ジンボク（東萊）議員は、「釜山市と日本の間に海底トンネルを掘るという話があるが、そうなれば釜山がもつ港湾の特殊性が失われる」として、釜山市の立場を尋ねた。

これに対しホ（許）市長は、「釜山としては、日韓海底トンネルが日本との交流協力に重要なので肯定的な検討が必要だ」とし「しかし、情緒的な問題や建設方式において初期的な段階で多くの議論が必要だ」と返答した。

再開発・再建築問題に対する政界の問題提起は最も深刻だった。

ホ（許）市長は、「対象地域が最も多い都市が釜山で、それだけ難しいことも多い」とし「結局、事業性のために推進できない場所が多いが国費の支援をずっと建議している」と報

告した。

それに対し、キム・ムソン(南区乙)議員は、「釜山の住宅普及率はすでに100%を超え、再開発事業がうまくいくのは難しい」とし「自分が住んでいた所にアパートが新しく建てられても、お金が無くて入ることができない人が多いのが現実」と指摘した。

ホ・ウォンジェ(釜山镇甲)議員も、「釜山の再開発・再建築の対象面積は、汝矣島(ヨイド)の10倍に及び、世帯数としては38万世帯」とし「こんなに多くの地域を同時に再開発することが正しいのか、よく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

ホ(許)市長は「需要の問題もあるが、現在の劣弱な住宅をそのまま置いておくのかという悩みもある」とし「どうしても難しい所は時期を遅らす等、釜山全域の再整備計画をもう一度検討する」と一歩引き下がった。

パク・ソクホ・チョン・チャンフン記者